

단국대학 시절, 신동엽이 만난 고구려와 동학

- 신동엽 연구(11)

김 응 교*

국문초록

시인 신동엽(1930~1969)은 단국대학교 재학 시절에 두 가지 큰 역사 공부를 한다.

첫째, 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인사들이 만든 최초의 민립대학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주사범 시절 이미 좌우익의 문제, 아나키스트 사상까지 섭렵한 신동엽에게 독립운동을 했던 장형과 장도빈이 세운 단국대는 한번쯤 거쳐야 할 상아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둘째, 신동엽은 장형으로 대표되는 대종교의 사상을 단국대에서 만난다. 장형의 시에서 대륙적 상상력을 배웠을 수도 있다.

셋째, 신동엽은 단국대 시절에 동학농민전쟁 기행을 한다. 장도빈의 동학혁명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인 『갑오농민란과 전봉준』(1926)를 탐독했을 가능성도 살펴 보았다. 이후 신동엽은 『동경대전』 등 동학사상과 역사 공부를 하며, 30년에 가까운 공부를 하여 서사시 「금강」을 완성한다.

신동엽은 단국대학 시절 전쟁을 체험했고,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역사와 종교를 살았던 독립투사 출신 장형에게 대종교, 장도빈에게 고구려와 동학혁명의 알짜를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

1953년 8월에야 단국대학은 서울 신당동으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개교한다. 한 인간의 삶에 특정 시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인 신동엽에게 단국대 시절은 분명 새로운 눈뜸의 계기를 준 중요한 시기였다.

[주제어] 시인 신동엽, 단국대학교, 고구려, 동학농민전쟁, 장형, 장도빈

목 차

- | | |
|---------------------------------|----------------------------|
| I. 해방기 다섯 가지 대학과 단국대학-서론 | IV. 단국대 시절, 신동엽의 역사인식 |
| II. 신동엽의 단국대 시절, 1949.9~1953.3. | V. 장형과 장도빈 그리고 신동엽 |
| III. 이승만의 일민주의와 단국대 전시연합대학 성적원부 | VI. 새로운 출발, 1953년 3월 졸업-결론 |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 eungsil@hanmail.net

I. 해방기 다섯 가지 대학과 단국대학-서론



〈자료 1〉 단국대 사학과 졸업사진

한 인물의 졸업사진을 본다. 1953년 3월에 찍은 신동엽 시인의 단국대학 졸업 사진이다. 신동엽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신동엽의 단국대 시절’을 집중해서 쓴 연구를 보지 못했다.

저 사진 앞에 수많은 의문이 든다. 그는 왜 단국대학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단국대를 입학했을까. 일찍이 시인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 왜 사학과를 선택했을까. 단국대 사학과에 그가 입학 원서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단국대학 사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학창 시절을 지냈을까. 단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것은 신동엽의 문학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여러 물음이 신동엽과 단국대학이라는 두 이름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 물음을 풀기 위해 먼저 신동엽이 단국대학을 선택할 즈음 해방기의 한국대학교 지형도를 살펴봐야 한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학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뿐이었고, 여기에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19개였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 고등교육정책에 의해 대학과 학생 수가 증가한다. 1948년 서울대, 이화여대, 연희대, 고려대 이렇게 4개의 종합대학이 인정되고, 이외에 단과대 23개, 초급대학 4개, 각종 학교 11개로 모두 42개의 대학으로 증가한다.¹⁾ 해방기의 대학을 분류하면 설립 주체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식민지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경성제국대학이 미군정의 주도로 국립대학교로 바뀐 서울대학교다. 일본의 제국대학령에 따라 6번째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관리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1924년 개교할 때 예과를 설치하여, 예과 1회 졸업생이 학부 본과로 진학하는 1926년에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치되었다. 개교 당시 일본인들의 인기가 높아 과에 따라 70~90%가 일본인 지원자였다.²⁾

둘째는 식민지 시절 총독부가 대학 인가를 주지 않아, 전문학교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연희전문, 보성전문(이후 고려대), 한양공전(현 한양대), 이화여전, 숙명여전, 그리고 1933년 개교한 평양의전과 대구의전, 1944년 개교한 광주의전과 함흥의전 등이 있다. 1946년 인가받은 조선정치학관은 후에 건국대학교로 교명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224쪽.

2)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531~532쪽.

을 변경한다.

셋째는 독립운동 세력과 인사들이 설립한 대학들이 있다. 단국대학, 국민대학, 국학대학, 신흥대학(현재 경희대학교), 홍익대학 등이다. 1946년 신익희는 국민대학을, 1947년에 장형은 단국대를, 정인보는 국학대학을, 1949년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현 경희대)을 신설하였고, 심산 김창숙은 폐교된 명륜전문학교(현 성균관대)를 부활시켜 대학으로 승격시켰다.³⁾

넷째, 종교계에서 만든 동국대학교, 성신대학(이후 가톨릭대학교로 개명), 장로회 신학대학 등이다. 다섯째, 지방의 유지들이 지역 이름을 들어 만든 청주대, 대구대 등이다.

여기서 주의해 봐야 할 대학은 신동엽이 선택한 단국대학이다. 장형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서울시 낙원동(자료 2)에 1947년 11월 1일 설립한다. 신동엽은 1949년 9월 단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한다. 독립운동가가지은 대학들이 재단이 바뀌면서 변질되었는데 “현재 2백여 개의 대학 중 단국대학이 유일하게 독립운동가가지은 대학이다”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글은 신동엽의 단국대학 시절을 탐구해본 글이다.

II. 신동엽의 단국대 시절, 1949.9~1953.3.

신동엽이 어떻게 단국대학을 선택했는지 추론하기에 앞서 겉으로 보이는 신동엽의 단국대 시절을 정리해 본다.

신동엽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첫째, 단국대학 사학과와 자료와 있고, 둘째 신동엽이 남긴 산문과 일기 그리고 성적원부가 있다.

먼저 단국대학교 사학과 자료를 보자(자료 2). 먼저 1947년 11월, 문교부에서 대학 설립을 인가 받자마자 사학과 1부를 설치하고 240명의 학생이 입학한 것을 볼 수 있다.

1948년 늦가을 18세의 신동엽은 무단 장기 결석이라는 이유로 전주사범에서 퇴학 당한다. 전주사범 시절 신동엽은 이미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스트 이론 등 깊이 있는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나름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전주사범에서 퇴학 당하지만 교원 자격은 인정되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일하기도 한다.⁵⁾ 1949년 7월 23일 19세의 신동엽은 공주사범대 국문과에 합격하지만 다니지는 않는다. 그해 신동엽은 집에 다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당시 서울 낙원동에 있었던 단국대학⁶⁾ 사학과에 입학원서를 낸다.

그해 9월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한다. 신동엽은 단국대학교 사학과 3기생이다.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신동엽이 입학하던 해에 사학과 학생이 320명으로 나온다. 사학과 전체 학생 수라고 생

3) 이계형, 「해방 이후 신흥무관학교 부흥운동과 신흥대학 설립」,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0쪽.

4) 한시준, 「단국대학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 박성순 외 공저, 『범정 장형의 독립운동과 단국대학 설립』,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4, 216쪽.

5) 김응교, 『좋은 언어로 - 신동엽 평전』, 소명출판, 2019, 48~50쪽.

6) 신동엽이 단국대에 다닐 때, 교명은 단국대학교가 아니라, ‘단국대학’이었다.

연 도	내 용
1947. 11	문교부로부터 대학 설립인가 받으면서 사학과(1부)가 설치됨(240명)
1948	사학과 첫 학술 담사 진행
1949. 11	문리학부 사학과 (320명)
1952. 04	부산광복교회에서 거행된 제2회 졸업식에서 2명의 첫 졸업생 배출 적은 인원 배출은 6.25 사변이 일어나 대학이 대구, 부산 등지로 전전하게 되었으므로 미처 자리를 잡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
1953. 03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거행된 제3회 졸업식에 “절대기는 가라”란 시로 알려진 신동엽 시인 졸업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 한국시단에 독특한 시풍으로 이름을 남겼지만 간암으로 1969년에 안타깝게도 요절

〈자료 2〉 단국대학교 사학과 홈페이지(2022년)

각된다.

단국대 입학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밭 6백 평을 어렵게 팔아 등록금을 보낸다. 고향 부여를 떠나 아무 연고가 없는 서울로 와서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단국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동엽은 출판사, 철공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친구가 버린 운동화를 주워 깨끗히 빨아 신고 다니기도 한다.⁷⁾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신동엽의 고향 부여는 7월 15일경 인민군의 손에 들어간다. 인민군은 조직사업을 펼쳐, 부여에 여러 단체를 만든다.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농민동맹 등 속속 조직되었다. 단국대학교 2학년인 20세의 신동엽은 7월초부터 9월 말까지 인민군 치하의 부여에서 민청 선전부장을 한다.

1987년 여름 필자는 신동엽의 친구를 수소문 하여, 신동엽 시인의 산문에



〈자료 3〉 1947년 설립 당시 단국대학 낙원동 교사
(출처 : 한국대학교 홈페이지)

7) 김응교, 앞의 글, 51쪽.

이름이 나오고 시인과 함께 찍은 사진(자료 4)도 있는 조선용(趙仙用) 씨를 부여문화원 김인권 님의 소개로 만났다. 학교 교사를 했던 그는 환갑을 넘겼고, 키가 컸다.

지금 신동엽 문학관이 있는 뒤편 큰 도로에 있는 2층 다방에서 만났다. 조선용 씨는 필자에게 “신동엽 시인이 민청 활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생 중 나중에 월북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인물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동엽이 뒤에 타서 민청 선전물을 뿌리거나 붙이고 다닌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료 4〉 좌로부터 신동엽, 조선용, 노문

다. 마치 자신은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듯,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애둘러 말했다.

그때 이 증언을 다른 자료로 크로스체크 하여 확인할 수 없어 필자는 다른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부여 사람들이 왜 신동엽 시비 앞에 멸공비를 세웠는지 이해할 수는 있었다. 이후에 이 문제에 얽힌 증언이 새로 나온 『신동엽 산문전집』에 발표되었다.

남북전쟁(한국전쟁)이 터지고 1950년 7월 10일경부터 시작하여 1950년 9월 하순경 부여군인민위원회 회가 휴회할 때까지 80여 일 동안 성립은 부여군인민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으며, 주로 마을 순회 강연을 많이 하였다 한다. 민주청년동맹(民主靑年民靑)도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 그가 언제 노동당(勞動黨)에 입당했는지 또는 안했는지 모른다. 또 언제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에 가맹(加盟)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당시 민청 가맹은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다.⁸⁾

이 글을 쓴 신동엽 친구 노문은 신동엽이 “1950년 7월 10일경 석립이 부여군인민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완장을 두르고 강연을 시작한”이라는 증언을 남겼다. 이후 노문은 부여경찰서 소속 형사가 되어 신동엽이 요시찰인물이 된 것을 알고 놀란다.

조선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이 다시 남쪽에서 회복하여 부여에 들어오면, 신동엽은 좌익사범으로 위험하기에 빨리 국군에 입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말했다. 실제로 신동엽은 생전에 아내 인병선에게 “빨치산 생활을 1달쯤 했다”⁹⁾고 말했다. 국군이 되면 과거 좌익사범 경력이 세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었

8) 노문, 「석립 신동엽 실전(失傳) 연보」(2006), 『신동엽 산문전집』, 창비, 2019, 445~446쪽.

9) 인병선, 「인병선이 노문에게 보낸 편지」, 『신동엽 산문전집』, 466쪽.

다. 이후 대학 2년생이 끝날 1950년 12월 말, 신동엽은 ‘국민 방위군’에 소집된다.

노문의 증언에서 필자가 만난 조선용 선생도 인공 때 부역하여 빨갱이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문장이 있다.

“그때 조선용도 그리 끌려와 곤욕을 당했다. 곡괭이 자루로 무차별 구타당한 그는 몇 번이고 실신했고,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의 부친과 읍내 어른들이 중재해서 일단 풀려나게 되었다.”¹⁰⁾

이 문장을 읽으며, 필자와 인터뷰 할 때 이미 노인이 된 조선용 선생이 왜 그리 말수를 줄이고, 조심스레 인터뷰 하셨는지 30여 년이 지나 이해할 수 있었다.

부여에 있다가 민청에 부역했다가 국군으로 탈출하여 곤욕을 피했던 대학 2년생 신동엽, 부여에서 인민군에 부역했다가 국군이 들어왔을 때 피하지 못했던 조선용, 두 친구들의 위험한 목숨을 아슬아슬 하게 보아왔던 부여경찰서 사찰계 형사 노문, 세 친구가 1955년 전쟁 후 찍은 사진(자료 4)은 시대의 비극을 넘어 가까스로 살아남은 역사의 아우라다.

Ⅲ. 이승만의 일민주의와 단국대 전시연합대학 성적원부

작가의 대학성적부를 검토하는 것은 공부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수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성적부를 보고 해당 작가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검토할 수 있고, 관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신동엽의 〈성적원부(成績原簿)〉(자료 5)¹¹⁾를 보면, 신동엽의 관심사를 볼 수 있다. 그가 ‘고고학’과 ‘고고학사’를 들은 것에서 고대역사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볼 수 있다. ‘법률학개론’, ‘경제학’, ‘정치학개론’, ‘형법’ 등을 수강한 것은 그가 사회과학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학수업은 1학년 때 교양과목 외에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 성적원부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성적원부에 쓰여 있는 시기가 ‘전시연합대학’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으로 대학 건물이 파괴되고, 학생과 교수 수가 급격히 감소된다. 전쟁에 피해 받거나, 군에 가서 전사(戰死)하거나, 생계를 위해 중퇴자가 늘었던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의 피해가 컸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성철 교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10) 노문, 위의 글, 455쪽.

11) 이 성적 원부는 필자가 1986년 단국대학교 학적과에 가서 신청하여 얻은 본이다. 당시 신동엽이라는 인물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법이 제정되지 않아, 아무 관계가 없는 필자가 신청했는데도 어떤 문제도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얻을 수 있었다. 후시 아직 남아 있는 단국대학교에 남아 있는 신동엽 증명서나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할 것이고, 단국대학교에서 신동엽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였다……언제 소집 영장이 내릴지 모르는 그들의 심경을 생각하니 그러한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고맙기도 하다.¹²⁾

이 일기를 쓴 1950년 12월 1일이면 수복후 서울 지역에서 수업을 다시 했을 시기였다. 김성철 교수가 이 글을 쓰기 전 11월부터 서울대를 중심으로 약 2개월간 ‘서울지역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었다. 국군이 북진하면서 전쟁이 끝나나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1951년 1.4후퇴가 일어나고, 서울 지역의 대학들은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역 전시연합대학’에 참여하거나 따로 피난학교를 운영하기도 한다. 먼저 서울의 주요대학 교수들이 주동되어 대학교수단이 자발적으로 결성된다.

운영위원회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교, 한국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 단국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 서울여자의과대학 등 10개교가 참여했는데 34명의 운영위원 중 23명이 서울대 소속이었으며 이화여대와 성균관대에서 각 1명, 부산에서는 부산대 2명, 수산대 1명이 참여해, 부산전시연합대학이 서울대, 부산대, 수산대등 국립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學修番號	姓名	第一學期成績	第二學期成績	印
1	申東曉	70	75	2
2	申東曉	70	75	2
3	申東曉	70	75	2
4	申東曉	70	75	2
5	申東曉	70	75	2
6	申東曉	70	75	2
7	申東曉	70	75	2
8	申東曉	70	75	2
9	申東曉	70	75	2
10	申東曉	70	75	2
11	申東曉	70	75	2
12	申東曉	70	75	2
13	申東曉	70	75	2
14	申東曉	70	75	2
15	申東曉	70	75	2
16	申東曉	70	75	2
17	申東曉	70	75	2
18	申東曉	70	75	2
19	申東曉	70	75	2
20	申東曉	70	75	2
21	申東曉	70	75	2
22	申東曉	70	75	2
23	申東曉	70	75	2
24	申東曉	70	75	2
25	申東曉	70	75	2
26	申東曉	70	75	2
27	申東曉	70	75	2
28	申東曉	70	75	2
29	申東曉	70	75	2
30	申東曉	70	75	2
31	申東曉	70	75	2
32	申東曉	70	75	2
33	申東曉	70	75	2
34	申東曉	70	75	2
35	申東曉	70	75	2
36	申東曉	70	75	2
37	申東曉	70	75	2
38	申東曉	70	75	2
39	申東曉	70	75	2
40	申東曉	70	75	2
41	申東曉	70	75	2
42	申東曉	70	75	2
43	申東曉	70	75	2
44	申東曉	70	75	2
45	申東曉	70	75	2
46	申東曉	70	75	2
47	申東曉	70	75	2
48	申東曉	70	75	2
49	申東曉	70	75	2
50	申東曉	70	75	2
51	申東曉	70	75	2
52	申東曉	70	75	2
53	申東曉	70	75	2
54	申東曉	70	75	2
55	申東曉	70	75	2
56	申東曉	70	75	2
57	申東曉	70	75	2
58	申東曉	70	75	2
59	申東曉	70	75	2
60	申東曉	70	75	2
61	申東曉	70	75	2
62	申東曉	70	75	2
63	申東曉	70	75	2
64	申東曉	70	75	2
65	申東曉	70	75	2
66	申東曉	70	75	2
67	申東曉	70	75	2
68	申東曉	70	75	2
69	申東曉	70	75	2
70	申東曉	70	75	2
71	申東曉	70	75	2
72	申東曉	70	75	2
73	申東曉	70	75	2
74	申東曉	70	75	2
75	申東曉	70	75	2
76	申東曉	70	75	2
77	申東曉	70	75	2
78	申東曉	70	75	2
79	申東曉	70	75	2
80	申東曉	70	75	2
81	申東曉	70	75	2
82	申東曉	70	75	2
83	申東曉	70	75	2
84	申東曉	70	75	2
85	申東曉	70	75	2
86	申東曉	70	75	2
87	申東曉	70	75	2
88	申東曉	70	75	2
89	申東曉	70	75	2
90	申東曉	70	75	2
91	申東曉	70	75	2
92	申東曉	70	75	2
93	申東曉	70	75	2
94	申東曉	70	75	2
95	申東曉	70	75	2
96	申東曉	70	75	2
97	申東曉	70	75	2
98	申東曉	70	75	2
99	申東曉	70	75	2
100	申東曉	70	75	2

〈자료 5〉 단국대학교 신동엽 시인의 성적원부

12)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1997, 291쪽.

13) 박선용·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2008, 354쪽.

전시연합대학을 구성했을 때 주도권은 서울 지역 교수들에게 있었다. 특히 고려대 총장 유진오와 문교부장관 백낙준,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방중현 등은 해방 이후 조선교육심의회와 문교부에서 활동하면서 국립대 설립과 대학 대중화를 주도한 인사들이 주도했다.

전쟁 중이어서 확실한 통계가 불가능한데, 1951년 전국대학 학생수는 2만 명 교수 수는 1,300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중 부산이 아닌 지역에 전국전시연합대학은 6,445명, 부산전시연합대학에는 4,268명이 있었다¹⁴⁾고 추정한다. 이 중 한 명이 시인 신동엽이었다.

4천 여 명의 전시연합대학 학생들은 교양과목은 시민관에서, 문학부A반(어학·문학)은 부민동 임시교사에서, 문학부B반(철학·사학·교육학)은 영도 남항공설시장 해동 중고등학교 임시교사에서, 법정 경상학부는 부민동 변재성 법률사무소에서 흩어져 수업을 들었다.

신동엽의 성적원부를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 당시 필수과목으로 있어야 할 수업 이름이 안 보이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1949년부터 화랑도 사상에 기반하여 한 핏줄임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일민주의(一民主義) 교육을 실시했다.

공산당을 타도하고 일부 동족간의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동포 마음속에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여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번 필리핀의 선거를 보면 파당적 혈전으로 민중이 분열되어 여러 가지 비평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미국의 민주제도를 참고로 하여 민주정제의 통일사상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우리 일반 애국동포들은 전국민이 다 하나가 되어 함께 뭉쳐서 같이 살자는 주의를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야만 될 것이니 사람마다 각각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민주정부를 영구히 요동없도록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¹⁵⁾

화랑사상, 민족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반공주의, 이 네 가지 교육방침이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승만의 일민주의에 따라 필수 교양과목으로 <유네스코 사업단 활동사>, <맑스주의 비판>, <사회사상사와 민족해방운동사>, <국제현장>, <전쟁과 사상>, <민족주의 개설>, <미국민주주의 발달사>, <군사강화>, <전쟁과 법률>, <현대의 자연과학> 등이 개설되었다. 게다가 한 학기에 6~8학점(체육포함)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징집을 보류 받는 학교군사훈련 실시령이 1951년 12월 1일에 공포되기도 했다.¹⁶⁾

분명히 민족주의와 반공사상과 군사훈련 수업 이름이 신동엽 성적원부에도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단국대 사학과 신동엽의 성적원부에는 그런 수업 이름이 없다. 어떻게 단국대 사학과에는 일민주의 수업이 없었을까. 단국대학은 전시연합대학에 내려진 이승만의 일민주의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산 지역 전시연합대학에 포함됐으나, 서울대, 연희대(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동국대, 해인대(경남대), 부산수산대학처럼 따로 단독 수업을 진행했을 가망성도 있다. 단국대학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추론 외에는 이 현상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14)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부설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17쪽.

15) 서울신문 편집부, 「이승만 대통령, 일민주의를 강조하는 특별교시를 발표」, 『서울신문』, 1949.12.20.

16) 박선용·김희용, 앞의 글, 356~357쪽.

불행하게도 난민 캠프로 온 학생들의 숙박이나 교통도 불안정했고, 교수들도 부산에서 살 처지가 안 되고 봉급도 제대로 지출되지 않아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전시연합대학 회상기를 보면, 창고 같은 곳 가마니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 교수가 출석 부르는 데 한 시간이나 걸리고 내용도 부실했다, 수업이 끝나면 술이나 마셨다 등 좋지 않은 평가가 적지 않다.

당시 신동엽은 “어떻게 하여 살아나갈 것인가. 날마다 빠져리게 박도(迫到, 다그치는 - 인용자) 생활의 위협”이라며 생활 자체가 어려웠기에 “판 데 문과로 옮겨보려 했더니 수속금만 칠만원이다”라는 일기까지 1951년 6월달¹⁷⁾에 남긴다.

전시연합대학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결국 1951년 2월 ‘부산지역 전시연합대학’은 설립된 지 1년여 만인 1952년 5월 31일에 공식 해체되었다. 문교부는 시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전시연합체제가 필요없다고 했지만, 앞선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단기 4285년(1952년) 6월 1일에 발행된, 단국대 4학년 22세 신동엽의 〈전시학생증(戰時學生證)〉(자료 6)은 전시연합대학이 발행한 마지막 학생증으로 보인다.

신동엽은 이 과정을 수강했는데, 아쉬운 점은 당시 강의를 했던 담당교원의 이름이 성적 원부에 쓰여 있지 않다는 사실¹⁹⁾이다. 담당 교원이 누구였는지를 알면 신동엽이 어떤이에게 수업을 들었는지, 그 교원은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인지, 더욱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동엽의 성적원부를 통해, 담당 교원을 알 수는 없지만, 단국대학교에서 전시연합대학의 일민주의 교육과 달리, 독자적인 수업을 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보았다.

이제 신동엽이 선택했던 단국대학교 초기 건학이념과 사학과의 기틀을 세운 인물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단국대학교 설립자 장형, 단국대학교 사학과의 기틀을 세운 장도빈, 두 사람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6〉 전시연합대학 학생증

Ⅳ. 단국대 시절 신동엽의 역사인식

그렇다면 이제 신동엽이 단국대학교 그것도 사학과를 선택했는지 알아봐야 할 차례다. 신동엽이 단국대

17) 신동엽, 「1951년 6월 〇일」, 『신동엽 산문 전집』, 256~257쪽.

18) 박선용·김화용, 앞의 글, 356~359쪽.

19) 이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 학적과에 알아서 추가하려 한다.

시절에 쓴 산문은 3편이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신동엽이 쓴 일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51년 단국대 3학년에 쓴 글로는 두 편이 있다. 당시 신동엽은 1951년 국민방위군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갔다가 죽을 고생 끝에 배가 고파 강에서 민물게를 먹는다. 이것이 후에 그의 사망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병든 몸으로 돌아온 신동엽은 몸을 회복한 뒤 부어를 떠나 대전으로 간다. 대전 전시연합대학에서 계속 공부한다. 이해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친구 구상화와 함께 동학 사적지를 찾아 다닌다.²⁰⁾ 이런 상황에서 「전환기의 인간성에 대한 소고」(1951년 10월 15일), 「발레리의 시를 읽고」(1951년 11월 5일)을 쓴다. 특히 전자의 글에서는 실존주의의 특징이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복잡한 사상(事像)도 두 가지 갈피를 나눌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수동적인 것이요 하나는 능동적인 것이다(물론 수동이나 능동의 대상은 가치체계의 인과율을 말한다. 전자의 것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맡기어 거의 무의식 중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자아만족의 경향으로 기우는 것이요, 후자의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정열과 이성을 다하여 의식적으로 환경을 조리(調利, 이롭게 조절하다 - 인용자) 함으로써 얽힌 매듭을 풀어헤치고 인간 본연으로서의 인간 그것의 모습을 어루만져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전자는 역사의 희생물로 되어 소멸하고, 후자는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 자족을 남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 글에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인간 분류가 명확히 보인다. 신동엽이 위에 쓴 전자의 인물형은 주체적 판단을 가진 인물이 아닌 피투(Geworfenheit, 彼投)형 인물이다. 피투형 인물은 수동적이고, 정신적으로 자아만족에 기우는 인간형이다. 피투형 인간은 역사의 희생물로 소멸한다.

후자의 인물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창조적인 기투(Entwurf, 企投)형 인간이다. 기투형 인간은 능동적이고, 모든 정열과 이성을 다하여 의식적으로 환경을 이롭게 조절한다. 기투형 인간은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 역사에 자족을 남긴다.

기투와 피투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만든 개념이다. 신동엽은 시에 하이데거를 언급했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헤밍웨이 장자(莊子)”(「산문시. 1」)라고 했는데, 하이데거의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동엽이 읽은 독서 목록을 보면 실존주의 저서가 많다. 1920년대부터 한국에 소개된 니체²²⁾ 이름이 신동엽 산문에 자주 언급된다. 해방기 이후 작가 사르트르, 카뮈 등도 읽었는데 신동엽이 읽은 실존주의에는 기투와 피투 개념이 잘 보인다.

신동엽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952년 단국대 4학년 때 쓴 글로는 「문화사 방법론의 개척을 위

20) 김응교, 『좋은 언어로 - 신동엽 평전』, 소명출판, 2019.

21) 신동엽, 「전환기의 인간성에 대한 소고」(1951년 10월 15일), 강형철·김운태 역음, 『신동엽 산문전집』(창비, 2019) 152쪽. 이후로 이 책을 『신동엽 산문전집』으로 줄여 쓴다. 신동엽 시도 강형철·김운태 역음, 『신동엽 시 전집』(창비, 2019)에서 인용하며, 따로 표기하지 않으려 한다.

22) 小春,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프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1920.6.25. 창간호.

하여」(1952년 1월)가 있다. 이 글은 당시 신동엽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왜곡된 방법론을 낳게 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보수(保守)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의 하나에는 어느 하나의 국가권력이 자체의 영구한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고의로 선사(先史)를 위조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일본이 세습적 군주국가의 무궁 안정을 누릴 목적으로 사회성을 망각한 **추상적 인물 중심**의 왕통 혈계(血系)를 조작해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에만 정신을 통일 집중시키려는 교활한 정책을 썼다는 것은 이것의 좋은 예일 것이다.²³⁾

1952년 신동엽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글에서 신동엽은 “고의로 선사(先史)를 위조”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나아가 “일본이 세습적 군주국가의 무궁 안정을 누릴 목적으로 사회성을 망각한 추상적 인물 중심의 왕통 혈계를 조작”했다는 언급은 아예 일본 역사관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말할 필요 없이 경성제대 곧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사관을 겨냥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을 쓸만치 이미 판단력을 가진 이가 당시 식민사관의 온상이었던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리는 없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것보다는 무질서한 형이상학적 단편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신라 박혁거세의 난생설만 하더라도, 원시적 무계급적 씨족사회 형태가 부족적 유계급적 왕족세습사회 형태로 발전 비약하는 모멘트에서 지배권으로서의 왕의 존재를 신격화 절대화함으로써 지배권을 피지배자로부터 엄연히 구분하려는 의욕의 미술적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²⁴⁾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신라 박혁거세의 난생설”도 지배자 계급을 신격화 신비화시키려는 의욕에서 만들어진 “미술적 표현”이라고 비판한다. 즉 지배자/피지배자를 나누고 지배자를 피지배자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는 현상은 한국사 속에도 있다는 반성이다.

두 가지 인용문을 통해 대학 4년생의 신동엽의 역사인식을 정리해본다.

첫째, 신동엽은 일본의 천황주의 역사관 자체를 부정한다. 일본의 천황주의 역사관은 그가 식민지 내내 총독부 교과서를 읽으며 배운 역사이다. 단순히 교과서로만 배운 역사가 아니라, 신동엽은 1942년 4월 1일 5학년 때 일본인 교장에게 ‘특별한 애’라는 칭찬을 받으며 조선 아이로서는 유일하게 뽑혀 일본 여행의 기회를 얻는다. 이후 1942년 4월 13일 대전에서 출발하여 15일간 일본 각지를 여행한 이른바 ‘내지성지참배(內地聖地參拜)’를 다녀온다. 내지성지참배란, 어린 학생들을 일본의 충실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 교육이었다.²⁵⁾ 신동엽의 부친이 보관한 사진을 보면 여행지가, 일본의 고대 문화가 있는 나라(奈良), 교토, 그리고 도쿄를 방문한 사진이 있다. 도쿄에서는 천황이 사는 니쥬바시(二重橋)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23) 신동엽, 「문화사 방법론의 개척을 위하여」, 1952년 1월.

24) 신동엽, 위의 글.

25) 김응교, 『좋은 언어로 - 신동엽 평전』, 2019, 32~35쪽.

동엽이 참여한 여행은 조선에 있는 학생들을 ‘내지(內地)’인 일본에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입혀 “일본은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심어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 이 여행은 일본 정신의 근원인 고대사, 천황, 군국주의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세뇌 교육 프로그램이다.²⁶⁾

신동엽이 일본의 천황주의 역사관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식민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관과 ‘내지성지참배’를 통해 천황주의 역사관의 문제를 정확히 깨달은 반성적 성찰의 결과일 것이다.

둘째, 신동엽은 한국사 안에 있는 과장된 조작을 거부한다. “박혁거세의 난생설”을 예로 들면서, 피지배 계급을 억누르려고 만든 한국 역사 속에 조작된 신비화를 거부한다. 이 문장에서 피지배 계급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다만 역사 왜곡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층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할 뿐이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1952년 4년생 신동엽은 아나키즘 도서,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등 다양한 고전을 읽고 있었다.

『부인의 지위와 사회진화(婦人の地位と社會進化)』(Rappaport 저) 읽다. 그리고 프로토프킨의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에 착수하다.²⁷⁾

『죄와 벌』 읽어 마치다.

머릿속이 선풍을 겪은 뒤의 삼림처럼 동요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던 신동엽이기에 일단은 출범 당시부터 조선과 만주·몽골·지나(중국)로 이어지는 대륙 연구의 사명을 강조했으며, 그래서 만주학이나 몽골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식민사관의 본산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서울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망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을 만든 역사 공부의 배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조금만 더 추적해보기로 하자.

V. 장형과 장도빈 그리고 신동엽

다시 시간을 거슬러 1947년으로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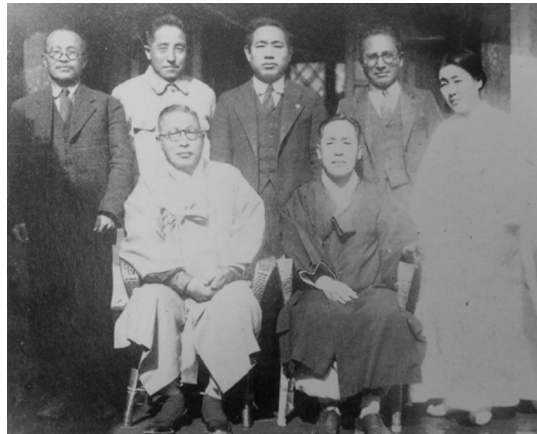
1947년 11월 1일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단국대학이 개교한다. 장형 선생과 조희재 여사가 설립했고, 사학과와 기틀을 세운 이는 장도빈이었다. 단국대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모두 나오는 특별한 사진(자료 7)이

26) 김응교, 위의 책, 2019, 33쪽.

27) 신동엽, 「1952년 8월 17일 일기」, 『신동엽 산문전집』, 2019, 270쪽.

28) 신동엽, 「1952년 9월 9일 일기」, 『신동엽 산문전집』, 2019, 277쪽.

있다. 앞줄 왼쪽에 흰 한복을 입은 김구, 그 옆에 장형이 앉아 있다. 뒷줄에 맨 왼쪽에 장도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조희재의 장녀 박정숙이 서 있다. 단국대학을 설립하고 이틀 후 조희재가 사망한 1947년 11월 3일에 찍은 사진이다.



〈자료 7〉 단국대학 설립을 격려하러 온 백범 김구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도빈 초대총장, 엄항섭, 양주동, 김정실, 박정숙, 장형

1. 장형의 대중교와 신동엽

평안북도 용천 출신의 장형(張炯, 1889~1964)은 경술국치 이후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한다. 단동을 거점으로 심양·길림 등지에서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연락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국내로 잠입해 1921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전국을 다니며 「깨어라 조선인아」, 「우리의 생로가 어딘가」 등 국민계몽운동 연설을 했다. 서간도에서 독립자금을 모으던 그는 1938년 경성에서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다.²⁹⁾

장형의 동지였던 박기홍의 부인인 조희재(趙喜在, 1892~1947)는 해방 후 단국대학 설립 때 전재산을 기부했다. 안타깝게도 단국대학교가 설립된 1947년 11월 1일, 이틀 후인 11월 3일에 일찍 사망한다.

신동엽과 관계지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장형이다. 장형은 대중교 신자였다. 단군을 섬기는 민족종교인 대중교는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상가 나철(羅喆, 1863~1916)은 민족고유의 정신인 국학사상을 계승하여 대중교를 펼치고, 일제하 만주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 명동마을을 중심으로 한 북간도 독립투쟁과 교육사업은 대중교와 북간도 기독교가 협력하여 추진해간다.

장형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 신도 독립운동가들은 단군(檀君)의 대학이란 의미로 단국(檀國)대학을 설립한다.

대중교가 한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여에는 단군 화상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대중교 지도자이자 항일운동가인 강우가 황해도에서 모셔왔다고 전하는 부여천진전 단군화상(도문화재자료 제369호, 자료 8)이 부여에 있었다. 신동엽이 부여에서 단군 화상을 보았다는 뚜렷한 증표는 없으나, 참고할만한 자료다.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에서 알맹이 정신은 대중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이다. 신동엽 시에 나오는 ‘하늘’의 개념도 대중교 사상과 비견할만 하다.

29) 한시준, 앞의 책, 2014, 205~208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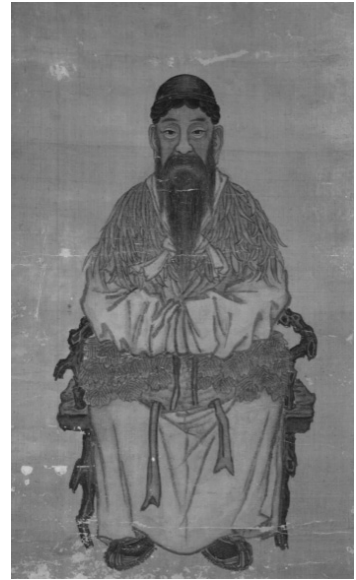
천도교와 더불어 2대 민족종교인 대종교에서 하늘을 인식하는 바는 더욱 명징하다. 대종교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 「천훈」에서 이렇게 말한다.

主若曰 咨爾衆 蒼蒼非天 玄玄非天 天無形質 無端倪 無上下四方
 虛虛空空 無不在 無不容(주약왈 자이중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형
 질 무단에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³⁰⁾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짝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이냐 따지 않은 것이 없다.



〈자료 8〉 정림사지박물관 소장 단군 화상

저 푸르고 푸른 것은 하늘이 아니고(蒼蒼非天), 저 깊고 까마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다(玄玄非天). 하늘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첫끝도 맨끝도 없으며, 위 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냐 따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구절은 신동엽 시에 나오는 ‘하늘’과 통한. 신동엽 시에 나오는 ‘하늘’의 개념은 대종교와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 개념으로 풀 때 이해가 가능하다. 대종교는 신동엽 외에도 이상화³¹⁾ 등 당시 시인과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신동엽이 쓴 시의 단어 중에 대종교에서 쓰는 단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지금은 상투적인 느낌까지 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껍데기는 가라」)라는 표현을 만든 이가 신동엽인데, ‘백두’를 중요하게 여긴 종교가 대종교였다. 대종교 계열 학자들³²⁾은 대체로 태백산을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고 주장한다.

단군이 내려온 태백산을 『삼국유사』에서는 묘향산이라고 했지만, 안정복은 백두산이라고 하였다.

30) 김한권, 『한민족의 정신문화』, 미래문화사, 1989. 266쪽.

31) 홍승진 교수는 「이상화 시의 대종교 미학」(『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학회, 2021)에서, 이상화 시에 나타난 ‘검신’ 개념과 ‘허무’ 사상이 대종교 사상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홍 교수는 이상화의 ‘한우님’이나 ‘한아님’을 ‘신성’으로 해석한다.

32) 조남호, 「대종교 계열 학자들의 영토 인식」, 『仙道文化』,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백봉과 나철이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단군이 내려온 곳이라고 선포한 이래, 백두산은 민족의 표상이 되었다.³³⁾

이후에 대종교 계열의 학자인 박은식, 신채호, 권덕규 등은 단군과 관계있는 지역이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 하여, 한국의 영토를 제주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넓혀 놓았다. 이들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대종교 지도자들은 실제 만주에 망명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교구를 나누고 포교를 하여 안고기도 사상을 되살리고 실천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성지에 침탈하는 것을 청산리 전쟁에서 단죄한 성과가 있었다.³⁴⁾ 다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대종교 계열 학자들이 영토 개념을 대륙으로 밀어 올렸지만, 아쉽게도 제주도, 울릉도 등 섬 영토에 대한 개념은 약했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단군조선의 영토로 명기한³⁵⁾ 학자는 지금부터 서술할 장도빈이다.

2. 장도빈의 고구려, 동학사상과 신동엽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장도빈(張道斌, 1888~1963. 자료 9)이다. 대한매 일신보사 기자로 활동하던 장도빈은 논설위원으로 신문 논설을 통해 일제와 맞섰다. 1908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법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대한매일신보』 기자로 일하면서 1911년에 졸업한다. 이미 그는 1908년 신민회에 참여하여 국제보상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고 일하던 신문사 이름이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총독부 기관지가 되자 장도빈은 신문 기사를 사직한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모의 사건을 신민회가 모의했다는 구실로 <105인 사건>을 일으킨다. 위협을 느낀 장도빈은 1912년 1월경 만주로 망명한다. 연길현 국자가(局子街)에서 25세의 장도빈은 조선 학생 백여 명에게 국사 강의를 한다.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며, 실증에 근거하여 저서를 낸다.



〈자료 9〉 장도빈

1916년 병고의 몸으로 귀국하여,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전공이 법학이었지만 국사연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그는 실재없이 역사 연구서를 낸다. 그는 수많은 위인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그리고 동학혁명의 역사를 연구한다.

『위인(偉人)린컨』(1917), 『조선년표(朝鮮年表)』(1921), 『조선 십대 위인전(朝鮮十代偉人傳)』(1924), 『조선사상사(朝鮮思想史 - 朝鮮思想史考, 朝鮮十大思想家傳)』(1925), 『동명왕(東明王)』(1925),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1925), 『원효(元曉)』(1925), 『이순신전(李舜臣傳)』(1925), 『발해태조(渤海太祖)』(1926), 『강감

33) 조남호, 위의 글, 2017, 283쪽.

34) 조남호, 위의 글, 2017, 287쪽.

35) 장도빈, 『국사개론』, 국사원, 1954. 4~5쪽.

찬전(姜邯贊傳)』(1926), 『을지문덕전쟁』(1926), 『조선문학걸작집(朝鮮文學傑作集)』(1926), 『갑오동학란과 전봉준』(1926), 『임오군란과 갑신정변』(1927), 『大院君과 明成皇后』(1927), 『한국의 혼』(1932. 1998년 재출간), 『조선사(朝鮮史)』(1935) 등 여럿이 있다.

해방 후 장도빈은 동덕 초등학교에서 『민중일보』를 창간하고, 공산언론에 대항하며 ‘조선신문 주간회’를 조직하여 대표로 활동한다. 1947년 11월 1일 단국대학을 설립한 장형은 자신의 육촌 형인 장도빈을 초빙하여 단국대학 초대학장으로 모신다. 신동엽이 단국대학을 다닐 때 장도빈은 학장이면서 사학과 교수였다. 해방후에는 『우리나라의 십이위인』(국사원, 1953) 등 여럿을 냈다. 저서 중에 『朝鮮文學傑作集』이라는 문학서도 있어 주목된다. 사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신동엽에게 친밀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신동엽이 장도빈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추론한 것은 도올 김용옥이다.

우리는 그(신동엽-인용자)를 시인으로만 기억하지만 그가 해방 후 단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1953) 사학도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시 그의 심령에 민족의 사혼(史魂)을 불어넣어준 이가 바로 장도빈(張道斌·1888~1963)! 신채호와 더불어 민족 사학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예봉을 휘둘렀고, 일제 강점 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권업신문의 논설을 써서 민족정기를 이끌어갔다.(……) 이 자주와 자립의 기틀을 그는 민족사학의 태두 장도빈을 초대 학장으로 모심으로써 정립하였다. 이미 단국(檀國)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민족사학의 학통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 불과 다섯 개 학과로 출발한 대학이지만 민족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학과를 당초부터 주축 학과로 삼았던 것이다.(……) 장도빈은 강단에서 독립도 껌데기 독립이요, 민주 운운 하지만 껌데기 민주라고 외쳤다. 그러한 장도빈의 열변과 독설 속에서 신동엽의 시심(詩心)이 출렁거렸던 것이다. 껌데기는 가라! 껌데기 역사는 가라! 껌데기 학문은 가라!³⁶⁾

신동엽 시인의 “심령에 민족의 사혼(史魂)을 불어넣어준 이가 바로 장도빈(張道斌·1888~1963)”, “장도빈의 열변과 독설 속에서 신동엽의 시심(詩心)이 출렁거렸던 것이다.”라고 도올 선생은 단언한다. 상상력으로 추측은 할 수는 있으나, 신동엽이 장도빈을 언급했거나, 장도빈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두 인물의 직접적인 만남을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장도빈의 사상과 신동엽의 시에 나타나는 사상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이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있겠다.

첫째 주목되는 것은 장도빈의 고구려 연구다. 고구려에 관해 그가 쓴 저서는 『泉蓋蘇文實記』(1920), 고구려 시조 주몽의 일대기를 쓴 『동명왕실기』(1921), 『광개토대왕』(1925), 『을지문덕전』(1925) 등이 있고, 많은 논문이 있다. 장도빈의 고구려 연구는 먼저 시기 구분을 시도한 것이 주목된다. 고구려는 중고(中古)의 삼국시대로 설명하고, 그는 『국사』(1916)에서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까지를 모두 왕대별로 서술하면서 고구려 역대 왕의 업적을 소개한다.³⁷⁾ 신동엽의 시에서도 고구려는 자주 나온다.

36) 김용옥, 「미션 입파서블 『한한대사전』」, 『중앙일보』, 2008.12.24.

37) 김한권, 앞의 글, 1989, 307쪽.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 피 있고,
바위 모서리엔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장충을 버려 던진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려 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문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 신동엽, 「진달래 산천」(『조선일보』, 1959.3.24. 밑줄은 인용자)에서

신동엽은 후고구려 적 장수들을 “햇빛 맑은 그 옛날”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당시 고구려 광개토왕비를 변조해 조선반도를 중국의 식민지로 오독시키려 했던 일제 식민주의 사관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장도빈은 고구려를 초년부터 강성하게 된 이유로 고구려 국민이 용감·진실하여 위대한 국민성을 가진 것, 정부에서 상무주의(尙武政治)로 국민을 교육 훈련한 것, 역대의 대왕이 다 영웅군주인 것을 들고 있다.³⁸⁾

고구려 연구는 한국사학계에서 민족주의 사학 계열에 속하는 신채호, 박은식과 신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과 함께 1920~194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한국 역사학자들 가운데 문화주의 계열에 속하는 崔南善, 李能和, 南宮樾, 安廓, 黃義敦, 張道斌, 權惠奎 등에 대한 사학사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통해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계열 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고구려의 선진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³⁹⁾한다.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백제의 달밤이 지나갔다
고구려의 치맛자락이 지나갔다
왕은 백성들의 가슴에 단꽃
군대를 백성의 고용한 문지기

38) 장도빈, 『국사강의』, 전집 1, 390면. 『국사요령』, 1950, 9쪽.

39) 박인호, 「산운 장도빈의 고구려인식」, 『중앙사론』 30.

앞마을 뒷마을은
한 식구 두레로 노동을 교환하고
쌀과 떡, 무명과 꽃밭
아침 저녁 나누었다

- 신동엽, 『금강』 6장에서

신동엽은 이 인용문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연합국으로 본다. 신라는 외세를 통해 삼국통일을 꾀한 적국이 다. 장도빈은 신라사 외세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을 비판한다.

신라가 당병을 끌어 고구려·백제를 격멸함으로 당병이 고구려·백제의 인민과 문명을 크게 소탕하여 그 약탈·살상·파괴가 극히 참혹하였음으로 우리 민족이 큰 손해를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의 심각한 불행이니라. (『국사강의』, 전집 1, 486면)

고구려·백제가 망하매...(중략)...우리 민족의 세력이 매우 감퇴하였나니 신라가 당병을 끌어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킨 결과가 이러한 것은 주의할 일이다. (『국사요령』, 1950, 16면)

장도빈이 고구려와 백제를 보는 시각은 신동엽이 고구려와 백제를 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또한 장도빈은 발해사는 한국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해 태조』(1926)에서 주장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드물게 신동엽은 시에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시킨다.

목매어 휘젓던 울창한 숲은 비 젖은 빛나는 구름밭에 휘저오르고,
명성딸기 무덤을 나와 절레덤폴로 기어들은 발해(渤海)는 바위에서 성긴 숲으로 숲에서 다시 불붙는
태고적 산불로 어울려 목숨과 팔뚝의 불붙는 천지로 타오른 그날 임진난리의 우렁찬 외침을 귀기울여
보아라. (신동엽, 「아사녀」 부분)

러시아로 망명한 장도빈, 중국으로 간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가 연구했던 발해를 신동엽은 당시에는 드물게 시의 소재로 담았다.

둘째로 주목되는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저서다. 세 권의 저서 『甲午東學亂과 奎璋準』(1926), 『壬午軍亂과 甲申政變』(1927), 『大院君과 明成皇后』(1927)이다. 특히 『갑오농민란과 전봉준』(자료 10)은 “동학란”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⁴⁰⁾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1937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가 1945년 『한국말년서』 3권 중 하권으로 다시 간행된다. 신동엽이 어디서 동학농민전쟁을 장도빈을 통해 최초로 알지 않았을까. 장도빈의 책이나 강연을 듣고, 동학기행에 나선 것이 아닐까.

40) 김중식, 「동학백주년 맞아 점검해 본 동학관련 도서」, 『출판저널』, 1994년, 4쪽.

동학년(東學年)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껌데기는 가라. -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에게 알맹이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에게 알맹이는 동학혁명과 3.1운동과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끌어 가는 잉겔볼이다. 장도빈은 『갑오동학란과 전봉준』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조선 말의 유일한 국민적 운동이며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것은 장도빈이 전봉준의 최후와 노래 〈파랑새〉를 소개하는데, 신동엽이 『금강』 앞부분에서 〈파랑새〉 노래가 나온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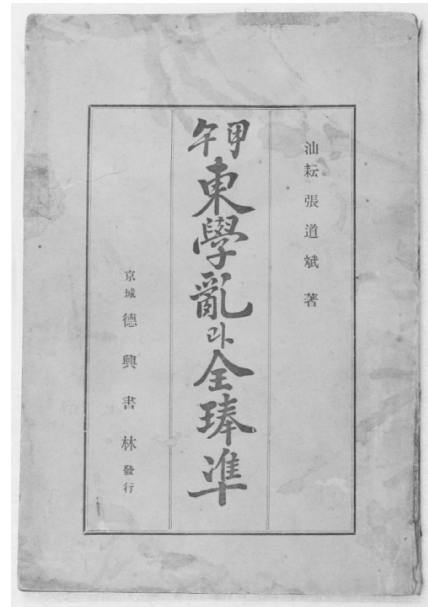
1.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 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업혀
 누님과 난, 곤잘
파랑새 노랏 배웠다.

울타리마다 담쟁이넉출 익어가고
 발머리에 수수모감 보일 때면
 어디서라 없이 새 보는 소리가 들린다.

우이여! 휘어이!

쇠방울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 주던 그 양품장수 할머니 기다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료 10〉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잘은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노랜 침장이에게 잡혀가는
노래라 했다.

- 신동엽, 『금강』

파랑새와 녹두꽃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다. ‘녹두’는 전봉준을 뜻한다.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란’⁴¹⁾으로 쓴 것은 당시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였다. ‘동학란’이란 용어는 일제강압기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 동학란이란 표현을 썼지만, 장도빈은 ‘동학란’을 처음부터 혁명으로 규정했고, 전봉준을 역적이 아닌 혁명가로 평가했다.⁴²⁾ 전봉준이 1874년 동학에 입도했고 동학교도라는 최초의 기록⁴³⁾을 장도빈은 이 책에 남겼다. 신동엽이 『금강』에 전봉준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장도빈의 전봉준 연구의 정보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금강』에서 전봉준이 나오는 중요 장면을 보자.

1888년 / 전봉준은, 서장옥의 소개로 / 동학에 입도했다.

태백산 속 / 은신해 있던 해월이 / 보은으로 나왔다. / 나흘을 걸어 보은땅 / 속리산 기슭 초가집에서 / 전봉준은 해월을 만났다.

- 『금강』 12장

신동엽은 전봉준이 부패한 양반과 빈궁한 민중을 보다 못해, 해월을 만나러 가서 동학도가 되는 길을 택한다고 썼다. 이 부분은 장도빈이 묘사한 부분과 정확히 같다. 장도빈의 글에서 명사는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요한 한자가 아니라면, 한글로 써서 인용하려 한다.

당시 동학당이 점점 비밀리에 결사(結社)를 완성하여 평등의 주의, 혁명의 사상으로 평민계급의 일대단체(一大團體, 하나의 큰 단체 - 인용자)가 봉준(奉準)이 그를 보고 암중환희(暗中歡喜)를 금치 못하여 그 단체가 자기의 생각과 근(近, 가깝다 - 인용자)함을 각(覺)하고 이에 신(身, 몸 - 인용자)을 동학당에 투(投, 던지다 - 인용자)하여 자기의 이상을 달(達)하기로 하여 동학 제2세 교주 최해월(崔海月) 시정(時定)의 문하에 신도가 되니 때는 서기(西紀) 1874년 경인(庚寅)이었다.⁴⁴⁾

신동엽은 전봉준이 동학에 입교한 해를 1888년으로 썼는데, 장도빈은 1874년에 전봉준이 해월을 만난 것

41) 1894년 당시 친일학자와 일본인 학자는 ‘동적(東敵)의 난(亂)’, ‘동학비란’, ‘동학변란’으로 표현했다. ‘북한에서는 ‘종교외피론’의 시각에서 종교보다 계급투쟁을 강조하여, ‘동학’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갑오농민전쟁’으로 표현한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정식명칭은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이라는 정신이 ‘농민’을 움직인 ‘혁명’으로 볼 수 있겠다.

42)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262~263쪽.

43)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유물 상세 설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4) 장도빈,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1926, 18~19쪽(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 연구자료집 · 1』, 여강출판사, 1991, 34쪽).

으로 기술했다.

각지의 농민 지도자들과 사건 / **전봉준**은 자기가 /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합천 해인사 / 경주 토함산, 마산, 진주 축석루 / 여수, 순천, 화엄사를 거쳐 /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 **봉준**은 그해 겨울 / 뜻 아니, 아끼는 아내의 / 죽음을 만났다.

- 『금강』 13장

그로부터 한 달 후, / 1894년 3월 21일. / **전봉준**이 영솔하는 / 5천 농민이 / 동학농민혁명의 깃발 / 높이 나부끼며 / 고부 군청을 향해 진격했다,

- 『금강』 17장

지금에 비하면 실질적 자료가 부족하지만, ‘동학란’이 실패한 원인을 청일 군사의 개입, 민중역량의 부족, 동학농민군의 군사적 실책으로 정확히 제시한다. 그러나 장도빈은 동학란이 한국역사에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평가한다.

갑오동학란의 영향이 동학당 자체에는 더욱 호영향을 주었으니 갑오동학란이 실패하였으나 그 무리 불법(無理不法)한 관리와 양반을 타격하여 그들을 응징한 후로는 관리와 양반의 탐학 잔인한 행위는 그치고 약소 인민도 생명·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동학란은 정신상이나 물질상이나 자유·평등의 파종을 이뤄 조선인의 일조광명(一條光明)이 되었다. 동학당과 전봉준의 희생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⁴⁵⁾

당시 매천 황현 등은 동학교도를 사람을 해치고 민중을 현혹하는 미신을 믿는 ‘비도(匪徒)’라고 비하⁴⁶⁾한 반면, 장도빈은 “동학란은 정신상이나 물질상이나 자유·평등의 파종을 이뤄 조선인의 일조광명(一條光明)”이 되었다고 상찬한다.

신동엽의 『금강』과 거의 같은 시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운동이지만, 백여 년이 지난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보면 이 사회에 평등과 도덕과 자유를 가르쳐 준 성공한 혁명이었다. 당시에 실패했기에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뜻이 후세의 가슴에 계속 회감(回感)되는 것이다. 신동엽은 거기에 더 큰 의미 부여를 한다. 신동엽은 『금강』에서 1894년 동학혁명,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학생혁명을 한국사에 새겨 넣어야 할 고정점으로 확실하게 의미 부여한다.

45) 장도빈, 위의 책, 1926, 19, 57쪽.

46) 김창수, 「매천 황현의 민족의식」, 『사학연구』 33, 1981.

2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닮아놓았다.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새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태양과 추수(秋收)와 연애와 노동.

- 신동엽, 『금강』 2.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시절”로 이어지는 『금강』의 앞부분은 관념적인 상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신동엽은 시간을 거꾸로 복기(復記)하며 거슬러 올라간다. 4.19혁명에서 3.1운동을 거쳐 동학혁명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녹두장군과 파랑새, 어렸을 적 황토 마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눈 앞에 펼쳐 보인다.

신동엽은 동학혁명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동학혁명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는 봉건시대로 후퇴하지 않고, 3.1운동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는 식민체제로 후퇴하지 않으며, 4.19학생혁명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는 독재시대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혜안(慧眼)이다.

Ⅵ. 새로운 출발, 1953년 3월 졸업 - 결론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로 전쟁 중에 1951년 9월 29일 대구에서 초대 졸업식이 있었고, 1952년 4월 2일 2회 졸업식이 부산 광복교회에서 있었다. 1953년 3월에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거행된 제3회 졸업식에서 「껌테기는 가라」란 시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이 졸업”했다고 단국대 사학과 홈페이지에 쓰여 있다. 3월에 졸업한 것으로 보면 이때까지 일본 학기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남아 있는 1953년 졸업 사진(자료 11)은 부산 남성여자 고등학교에서 찍은 졸업 사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 왼쪽 아래 “충남 동○”로 쓰여 있는데, “충남 동기” 곧 단국대 졸업생 중 충청남도 출신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 아닌가 추측된다.



〈자료 11〉 신동엽 졸업사진(1953년)

졸업식 무렵에 신동엽은 지금까지 단국대와 전장터에서 만난 친구들을 그리워 하며 1953년 3월 22일 일기에 남겼다.

모진 바람은 짙은 목숨 위에 불어오고
 비창(悲愴)한 몸부림은 민족의 혈맥 속에 숨기쁠 무렵,
 그대 정다운 이름들은
 인류의 고민을 나누어 지고 뿔뿔이 헤어지려는도다.
 여기 꽃다이스 아로새겨놓은 그리운 이름들은,
 내일날 험준한 여로에 지쳐 이역의 어느
 산모퉁이에 뜻아니 해후했을 때,
 그리고 또는 다시는 못 만날지라도
 그대들 서로의 심장 속에 거화(炬火)가 되어 불기둥 이룰 것이려니……
 가거라, 인류의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하여.
 그리하여 무시로 부르라, 그리운 이름이여!
 신명나는 벗들의 이름이여!⁴⁷⁾

지금까지 보았던 신동엽은 단국대학교 재학 시절에 세 가지 큰 역사 공부를 한다.

첫째, 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인사들이 만든 최초의 민립대학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주사범 시절 이미 좌우익의 문제, 아나키스트 사상까지 섭렵한 신동엽에게 독립운동을 했던 장형과 장도빈이 세운 단국대는 한번쯤 거쳐야 할 상아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둘째, 신동엽은 장형으로 대표되는 대중교의 사상을 단국대에서 만난다. 장형의 시에서 대륙적 상상력을 배웠을 수도 있다.

셋째, 신동엽은 단국대 시절에 동학농민전쟁 기행을 한다. 장도빈의 동학혁명에 관한 저서를 탐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신동엽은 『동경대전』 등 동학사상과 역사 공부를 하며, 30년에 가까운 공부를 하여 서사시 「금강」을 완성한다.

신동엽은 단국대학 시절 전쟁을 체험했고,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역사와 종교를 살았다. 단국대학 시절 독립투사 출신 장형에게 대중교, 장도빈에게 고구려와 동학혁명의 알짬에 다가갔을 가능성을 이 글에서 찾아보았다.

다만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장도빈에게 수업을 들었는지 등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이 추적해야 할 내용도 다음 논문에서 수행하려 한다. 또한 이 논문을 마무리 제출하는 시기에, 신동엽 시인의 큰아들 신좌섭 교수(서울대학교 의대)에게 신동엽 시인이 읽은 백세명 『동학사상과 천도교』(동학사, 1956)를 받았다. 이 책과 신동엽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 과제로 남기려 한다.

1953년 8월에야 단국대학은 서울 신당동으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개교한다. 한 인간의 삶에 특정 시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인 신동엽에게 단국대 시절은 분명 새로운 눈뜸의 계기를 준 중요한 시기였다.

47) 신동엽, 「1953년 3월 22일 일기」, 『신동엽 산문전집』, 2019, 292쪽.

〈참고문헌〉

-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1997.
- 김응교, 『좋은 언어로 - 신동엽 평전』, 소명출판, 2019.
- 신동엽, 『신동엽 시전집』, 창비, 2019.
- 신동엽, 『신동엽 산문전집』, 창비, 2019.
- 장도빈,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1926(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 연구자료 집 · 1』, 여강출판사, 1991).
- 장도빈, 『국사강의』, 전집 1, 390면. 『국사요령』, 1950.
- 장도빈, 『국사개론』, 국사원, 1954.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부설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김용옥, 「미션 임파서블 『한한대사전』」, 『중앙일보』, 2008.12.24.
- 김중식, 「동학백주년 맞아 점검해 본 동학관련 도서」, 『출판저널』, 1994년.
- 김창수, 「매천 황현의 민족의식」, 『사학연구』 33, 1981.
- 김한권, 『한민족의 정신문화』, 미래문화사, 1989.
- 박선용 · 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2008.
- 박인호, 「산운 장도빈의 고구려인식」, 『중앙사론』 30.
- 서울신문 편집부, 「이승만 대통령, 일민주의를 강조하는 특별교시를 발표」, 『서울신문』, 1949.12.20.
- 이계형, 「해방 이후 신흥무관학교 부흥운동과 신흥대학 설립」,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정근식 등, 『식민권력과 근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조남호, 「대종교 계열 학자들의 영토 인식」, 『仙道文化』,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 한시준, 「단국대학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 박성순 외 공저, 『법정 장형의 독립운동과 단국대학 설립』,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4.
- 홍승진, 「이상화 시의 대종교 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21.
- 小春,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프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1920.6.25. 창간호.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Dankook University, Goguryeo and Donghak with Shin Dong-yeop

Kim, EungGyo*

Poet Shin Dong-yeop(1930~1969) studied two big histories when he was a student at Dankook University.

First, it is very important that Kim Gu(金九, 1876~1949) chose the first private university created by independence movement figures. Dankook University, established by Jang Hyung(張炯, 1889~1964) and Jang Do Bin(張道斌, 1888~1963), who campaigned for independence to Shin Dong-yeop, who already had problems with left and right wings and anarchist ideas during the Jeonju high school, would have come to go through at least once.

Second, Shin Dong-yeop meets the ideas of Daegyo, represented by Jang Hyeong, at Dankook University. Shin Dong-yeop may have learned continental imagination from Jang Hyeong's poems.

Third, Shin Dong-yeop traveled to places of the Donghak(東學) Peasant War during the Dankook Dynas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Jang Do-bin's book on the Donghak Revolution may have been devoured. After that, Shin Dong-yeop studied Donghak thought and history such as "Donggyeong Daejeon(『東經大全』)," and studied for nearly 30 years to complete the epic "Geumgang."

Shin Dong-yeop experienced war when he was in Dankook University, and he could have learned grand religion from Jang Hyung, a former independence fighter who lived history and religion through life, not ideas, and learned the secrets of Goguryeo and Jang Do-bin.

After the war, Shin Dong-yeop, a graduate of Dankook University, meets In Byeong-seon and begins a new start to open his eyes to new love. It was not until August 1953 that Dankook University returned to Sindang-dong, Seoul, and it was newly opened anew. Certain periods in a person's life can have a big impact. The days of Dankook University were definitely an important period that gave poet Shin Dong-yup a new opportunity.

[Keywords] Poets Shin Dongyup, Dankook University, Goguryeo, Donghak Peasant War, Jang Hyung, Jang Do Bin

*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